




 금융위원회	<h1>보 도 설 명</h1>				
 금융감독원					
 금융투자협회 Korea Financial Investment Association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21.3.23.(화)	

책 임 자	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장 홍 성 기(02-2100-2630)	담 당 자	김 영 근 사무관 (02-2100-2642)
	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 김 범 준(02-3145-5700)		한 창 훈 팀장 (02-3145-5687)
	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 (공석)		김 동 오 부장 (02-2003-9420)

제 목 :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과 관련하여 금융투자협회에서  
자율규제위원회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.  
(서울경제 3.2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## 1. 기사내용

- ☐ 서울경제는 3.23일자 「표준투자준칙도 없는데... 증권사 곤혹」 제하의 기사에서,
- “23일 증권 업계에 따르면 오는 25일 금소법이 시행됨에도 금융투자업권의 표준투자권유준칙이 나오지 않아 증권사들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... 아직 금감원의 검토를 거치고 있다.”

## 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당국 및 금투협회의 입장

- ☐ 현재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과 관련하여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율규제위원회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.
- 금융당국은 표준투자권유준칙이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.
- ☐ 참고로 금융당국은 새로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법 시행에 따라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제도에 대해서는 향후 6개월간 지도(컨설팅) 중심으로 감독\*할 예정입니다.

\* 고의·중대한 법령위반 또는 감독당국의 시정요구 불이행 이외는 비조치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  
할 경우 출처를 표기  
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  
[prfsc@korea.kr](mailto:prfsc@korea.kr)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